

# 사설

## 새 종정 모신 조계종

염화미소로써 정법안장의 진리를 전하신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지만 부처님의 제자들과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법을 깊이 깊이 계승하고 있다.

2일 조계종의 최고결기기관인 원로회의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해암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은 부처님이다. 그러나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은 조계종의 종정스님이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며, 종정은 조계종의 총통을 승계하고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부처님 다음으로 한국 불교 지존의 지위에 계시는 종정스님은 한국 불교 천년 불자의 수행의 사표가 되며, 전 국민의 지도자로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 종정이라는 지존의 자리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대행자이다. 따라서 종정의 위상은 참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우며, 종정의 자리가 명리의 상징이 된다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62년 통합종단이후 9대에 걸쳐 8명의 종정을 모셨다. 어떤 분은 부처님의 앞자리를 지키고 서서 종도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어떤 분은 모진 수난을 겪기도 하고 권력의 열자리에서 전향하기도 했다. 종정이라는 지존의 자리에 섰던 부처님 다음으로 나투었느냐에 따라 종정 추대 당시와 끝날 때의 모습도 판이하게 달라졌던 사실을 천만 불자와 4천만 국민들은 너무나 잘 보아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의 사상으로 사상(四相)을 버리고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 다음 자리로 존경받는 종정의 자리가 정치권의 권력에 이용되거나 파당과 독선의 권좌가 된 것을 보았을 때, 불자들의 마음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로 너무나 허탈하고 안타까웠다는 점을 명심하고 새 종정스님은 불자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사회와 시대를 이끄는 사표로서 위의를 갖추도록 주변에서 잘 모셔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종단사태로 인해 사상 최악의 수모를 겪으며 끝도 모를 나락으로 떨어졌던 조계종이 간신히 몸을 추스려 모처럼 안정을 찾고 있다. 자비와 무소유의 모습을 보여야 할 승려들의 유행 투쟁, 총무원 청사물 쫓고 쫓기는 살벌하고 처절한 싸움의 모습의 잔영은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 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는 종정의 자리가 멸민의 징계를 당하는 어이없는 수모는 없어야 될 것이며, 종도들의 공의를 무시한 종정의 교시가 남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 조계종이 전과를 참회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종도가 다시 출가하는 정신으로 수행 정진과 교육·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차제에 종단의 최고 어른인 새 종정을 모시게 됨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로 추대된 해암 종정스님은 수십 년간 수좌계의 사표가 되었던 상징적 이미지를 되살리는 데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개인적인 권위와 문종적인 차별에 치우치지 말고, 종도들의 화합과 무소유의 출가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는 수행풍토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경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종정스님의 덕화가 불교계에 두루 미쳐 청정한 승풍을 진작하고 불교개혁의 구심축으로서 또 불자들의 정신적 화양처로서 흔들리는 불교교단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해암 종정스님의 추대를 경하하며 아픔을 겪은 조계종이 새 종정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사회의 빛이 되고 창조적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불교TV 분담금 조정 중앙승가대 특위 구성

## 조계종총회 원로회의법등 3개 종법 개정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3월 29일 본회의를 속개해 원로회의법 등 3개 종법을 개정하고 총회 운영규칙 제정, 불교TV정상화대책위원회 분담금조정 특위 중앙승가대운영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마치고 31일 139회 임시총회를 폐회했다. '영축총림 해제 건'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보류요청을 받아들여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최근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불교TV를 구제하기 위한 특위는 정유, 법안스님의 제안으로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총회 합동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정유(위원장, 법제분과위원장), 원태(총무부장) 여연(사회분과위원장) 장작(총회의원) 정남(·) 법안(간사) 양산(간사, 문화부장) 스님 등 7인이다. 불교TV특위는 7일 회의를 열어 불교TV 재정상태 현황과약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분담금특위 분담금 조정을 위한 실태파악 특위는 분담금 조정 대상 사찰을 실시하고, 분담금 조정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교구본사, 관립사찰, 재정 우량 사

찰 등 1백여 곳이 실태파악 대상 사찰이다. 위원장은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장 지명스님이 선임됐다.

중앙승가대특위는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3월30일 총회에 출석, "김포학사 완공 이후 운영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요청해 구성됐다. 위원은 총회의원 13명, 총무원 3명, 교육원 2명, 중앙승가대 2명 등 20명이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는 완공까지는 400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완공 후 매년 운영비만 최소 30여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로회의법: 원로의원 자격을 승방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80세 이하의 원로 비구로 한정했으며, 연령 초과 때부터 원로의원직을 상실한다. 법개정 과정에서 연령 상한선을 85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거동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종단 위급시 판단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우세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종원과 상충했던 종정추대 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직능대표 선출위원의 임기를 다음 대(代) 중앙총회 개원일 전일까지로 명시해 임기 조항을 신설했다. ▲본사주지회의법: 정기 중앙총회 및 결산총회 개최 1개월전 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한다. 의장(총무원장)의 필요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 '국제교류위원회' 조계종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은 3월29일 총무원회의의결로 '국제교류위원회'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 관련정보 취합, 국제대회 참가, 국제홍보를 발간 및 배포 등 종단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기구 기능수행에 따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정성은 기자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3월31일 공식 출범했다. 청림사와 함께 개최한 '사찰과 환경' 주제 토론회 모습.

## "산사 오폐수문제 심각"

### 사찰환경보존위 토론회 공원내 사찰 383곳중 93곳만 오수처리 시설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 조계종 사회부)가 3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청림사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사찰환경보존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사찰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본지 제216호 1면 참조>

2기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에는 유정길(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김선희(국토

연구원 연구원) 오구균(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이병인(밀양대 환경학과 교수) 오영석(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재경(법제연구원 연구팀장) 이영경(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윤여창(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씨 등이 위촉됐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된 '사찰과 환경'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병인교수(밀양대 환경학과)는 "전국의 국·도·군립공원내 사찰 3백83군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93곳(24.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찰 오폐수처리 관공객들로 인한 오수배출 등 공공성이 크므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설 설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종교편향 사례 백서' 발간

### 조계종, 이달 중순에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해·현진스님)는 대책위 발족 1주년을 기념해 4월 중순경 <종교편향 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종교편향 사건의 당사자들을 초청, 기념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종교편향 관련 총 추경피해액 △월·계절·시간대별 사건발생 현황 △해법방안 도구 △취급·방화 유형별 검거 실적과 미제 건수, 검찰 예방조치 지시건수 △전화 접수사건의 유형별(교육, 군대,

언론 등) 분석 △경찰청공문 분석 등을 담은 글과 주요 공문, 신문 기사, 사진, 포스터 및 유인물 등으로 5백여쪽 분량의 백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해법사례 발생시 적용가능한 헌법 형법 공무원법 등 관련법률과 대응사례 및 방법 등을 담은 관련법규 매뉴얼을 하반기 중에 제작할 예정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이를 위해 추가로 개인이 소장한 종교편향 관련 사진·문건 등을 접수받고 있다. (02)7340-10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지방승가대 육성 논의

### 조계종 승가대학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은 3월 30일 지방승가대학장 회의를 열고, 지방승가대학 집중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조계종 재심호계원 정유·현소스님등 4명 멸빈

### 현호·법일스님 판결 보류

조계종 재심호계원(호계위원장 원서)은 3월 31일 12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정유 현소 원학 현근스님 등 4명에 대해 멸빈의 징계를 확정했다. 현호 법일스님에 대해서는 자료불충분의 이유로 판결을 연기했다. 율탄 스님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멸빈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3월30일 22차 심판부를 열고 법타스님(은해사 주지) 공권징지 4년, 풍광스님(도선사 주지) 공권징지 5년 등 20명에 대해 공권징지 1~10년의 징계를 내렸다. 총회의원직 사표를 제출한 인형, 진구스님에 대해서 심리연기 및 판결 보류했다.

오후 2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열린 재심 심판부는 호계위원 8명중 7명(현성스님은 사표제출)이 참석했으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판을 마치고 나오는 호계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으며, 서로 "교생했습니다"란 인사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판결을 앞두고 총무원 주변에서는 '감형'을 예상했으나 멸빈이 확정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의 판결로 다시 냉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이날 총회에서 벌어졌던 '변론 살전'도 강경분위기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몇몇 총회의원과 중앙총무기관장, 본사주지들이 징계 대상자의 변호자로 접수하자 해종특위위원장 법종스님이 총회에서 변호자 교체를 요구했다. 징계대상자의 '선참회 후변론'·'과거 공적 인정'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2시부터 열린 재심호계원 심판에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의 변론으로 진행됐다. 호계원법 34조는 변호사는 심리절차에 참석하여 피제소인을 위한 변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율탄스님 "징계 철회" 요구

한편 율탄스님과 율탄스님은 3월 29일과 1일 각각 '교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율탄스님은 "교시"에서 "제2회회의 것발을 드높이고 전국적으로 정화불사를 실천하라"고 밝혔다.

율탄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도들에게 청정승가를 복원하자며 징계조치의 철회와 종정추대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승려 석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율탄스님은 정화개혁회의 관련자료집 <정법구원> 3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정성은 기자

현대불교 737-8881

## 현대만평



잘 모시고 잘 이끌고

## 우룡큰스님 법문집

# 불교신행의 주춧돌

##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나?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교역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위한 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 I. 새벽예불
- II. 오분향례
- III. 부처님이사여, 크나큰 진리여
- IV. 거룩한 사대보살
- V. 영산회사의 제자들
-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 VII. 자타일사불도

신국판 / 5,000원